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時秋秋雨霽(시주작우제), 新涼入郊墟(신량입교허).”

이 오래된 한시 구절처럼, 때늦은 장마가 겹치고 서늘한 가을이 들녘에 가득 차오르는 9월의 끝자락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을 예비하는 이 시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섭리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쫓고 있는 위대한 깨달음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성경 말씀은 씨앗이 스스로를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랍고도 신성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생명의 약속을 품은 우리 고유의 씨앗들이 소리 없이,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농업 관련 한 연구 단체의 경고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두 마을만 돌아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던 씨앗이, 이제는 다섯 마을을 찾아야 겨우

양종을 구매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보기 좋고 유통에 편리한 몇몇 품종만이 시장을 장악했고, 맛과 영양은 뛰어나도 ‘색이 예쁘지 않다’거나 ‘유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설 자리를 잃은 토종 씨앗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플라스틱 물건의 홍수 속에 박을 심어 바가지를 만들던 풍습마저 사라지자, “바가지는 있어도 씨앗은 없다”는 새롭고 역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채로운 창조물을 인간의 탐욕과 효율성 논리로 파괴하는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염과 가뭄, 갑작스러운 폭우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토종 씨앗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씨앗 보존을 의지하는 이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토종 씨앗은 기후 변화에 적응합니다. 어떤 해에는 도태되지만, 또 다른 해에는 살아남습니다. 씨앗은 기억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씨앗을 잃는 것은 곧 대안을 잃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지키는 믿음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5년, 이 씨앗들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씨앗과 함께 우리의 삶의 체보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씨앗들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될 걸까요? 대량 생산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농업 방식은 농부들에게 씨앗을 직접 받아 심는 수고 대신, 기업에서 판매하는 개

반가운 소식은 이제 젊은 세대들도 이 씨앗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씨앗을 ‘귀중한 농사의 부신’이 아닌, ‘문화적 자산’이자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상업성 위주의 종자 개발에 치중하는 동안, 민간에서 조용히 씨앗을 이어가는 이들의 노력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는 순교한 신앙인의 정신과 같습니다.

것입니다.” 이 의침은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밤비, 우리 가정에서 자급 가능한 껌질 많은 참외,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지닌 다양한 품종과 함께... 이 모든 토종 씨앗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생존 레퍼토리’를 제공할 귀한 생명줄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께서 주신 놀라운 적응력과 다양성이라는 선물이 바로 토종 씨앗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위대한 생명 보고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연구소 소장 겸
· 회년사상 연구위원
· 주가권 기독교대 공동대표



‘회년’이란 단어에는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다. 곧 회년이란 단어에는 문자적 의미, 시간적 의미, 근본적 의미, 파생적 의미,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그 문자적 의미는 ‘웃음’, ‘즐거움’ (웃음의 율로 탄는 나팔)을 가리킨다. 그럼 왜 회년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런 것들을 가진 ‘요벨’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속죄일’의 중요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곧 속죄일에 ‘즐거움’ (웃음의 율로 탄는 나팔, 쇼파트)을 불어서 회년의 시작을 공표했기 때문에, ‘쇼파트’란 단어와 같이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요벨’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즐거움’을 주는 ‘속죄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회년이 시작되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회년의 시작이 바로 속죄일에 있기 때문에, 속죄일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한 번제물로 각각 한 마리아를 바쳐야 하는 ‘웃음’ (레 16:3, 5)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일’이란 단어와 같이

회년을 ‘주빌리’ (Jubilee)로 번역했는데, 불기타역처럼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자로는 ‘회년’ (禧年)으로 번역했는데, ‘복 회(禧)’와 ‘년(年)’ 자를 써서 ‘복된 해’라는 뜻으로 ‘복’을 강조했다. 다섯째, 회년의 신학적 의미는 ‘이웃 사랑의 거룩한 생활’이다. 레위기 전체에서 회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먼저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크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거룩한 제사(1장-15장)
속죄일(16장)
거룩한 생활(17장-27장)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이 레위기의 주제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죄 때문에 거룩함을 잃었을 때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속죄일 본문은 거룩한 제사에 대한 본문과 거룩한 생활에 대한

회년의 의미

‘웃음’이란 뜻을 가진 ‘요벨’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속죄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웃음’과 ‘즐거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요벨’이란 단어 하나로, ‘즐거움’을 주고 번제물 ‘웃음’을 바치는 회년의 시작일인 ‘속죄일’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요벨’이란 단어는 다른 어떤 ‘속죄’가 회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둘째, 회년의 시간적 의미는 ‘제50년’이다. 구약 이스라엘 역법(曆法)에서 제50년이 바로 회년이다.

셋째, 회년의 근본적 의미는 ‘자유, 해방’이다. 회년은 ‘자유’ (데르르)를 선포하는 해이다(레 25:10).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회년을 ‘자유와 해’ (헤나트 하 데르르)라고 불렀다(마 23:37).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에서도 회년을 ‘해방의 표지’ (아페세오스 세마시아)라고 번역하여 ‘해방’의 의미를 강조했다.

넷째, 회년의 파생적 의미는 ‘기쁨, 복’이다. 이 ‘기쁨과 복’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회년의 근본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회년에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기 때문에 회년은 기쁘고 복된 것이다.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기타역에서는 회년을 ‘유빌리’ (Jubilate)로 번역했는데,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 사이의 한기문대 위치하여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속죄일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는 진리의 예표이다.

그런데 레위기 후반부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레 19:2). 그런데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동포와 가류민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 “너희와 함께 있는 가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겨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 19:34).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두 번에 걸쳐 ‘이웃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웃 사랑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회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절정(클라이맥스)에 놓여 있다. 곧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회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절정인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기독교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신뢰가 약하여 참 관음스럽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복지와 봉사 자원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극우세력들과 또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이 부족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다. 누가, 언제, 아시아의 사색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우리나라에 전해 주셨을까? 이것을 때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이름을 붙여 본적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광주 양림동에서 유진벨과 오웬선교사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미국 선교사는 알렌이라고 할 수가 있

겠다. 알렌은 선교사로서의 일 보다는 미국공사의 역량이 많았다. 1885년 4월 5일 복신으로 인천제물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복장로회의 언더우드(1859-1916)선교사와 그의 가족은 4대에 걸쳐 복음을 전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도착하여 제물포에 근무를 하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창립하였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브란스교회를 설립하였다. 세브란스 병원 건립에도 언더우드의 공이 컸다. 경신학교로 시작된 학교는

나중에 경신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고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학교로 발전하였다.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으나 2016년 10월 16일 57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된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한국인이름이 ‘원두우’이다. 본 인편만 아니라 가문을 보아야 한다. 2대로 호리스 호른 언더우드는 한국인이름이 ‘원한경’이다. 3대는 호리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는

한국이름 ‘원일환’이다. 4대 호리스 호른 언더우드 주니어는 한국명 이름이 ‘원한경’이다. 언더우드 가족의 역사가 있는 비석은 서울 마포구 ‘양화진과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되어 있다.

복장로회에 언더우드 가문이 있다면 10년 늦게 1895년에 조선에 들어온 남장로회는 유진벨 가문이 있다. 유진벨의 한국이름이 ‘배유지’이다. 1897년 나주선교부를 만들었으나 결국 철수하고 1898년 오웬선교사와 함께 목포선교부를 시

“양화진과 양림동”

작한다. 영흥교회, 정명교회를 시작하였다. 1904년 광주에서는 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 숭실학교, 수피아학교를 시작했다. 잉그램 위더스폰과의 자비인 사뭇은 남장로회의 최연소 선교사로 2세 방한하여 선교를 시작한 윌리엄 린튼과 결혼하게 된다. 4명의 자녀가 있고 3남인 인후는 6명의 자녀를 두게 된다. 호남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일제 강점기에 끝까지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

기에 주방당했다가 해방 후 다시 일국 4대째 대한민국을 섬기게 된다. 1995년 유진벨재단을 통해 복원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선교사 50명이 양림동인 호남신학대학교 동산인 양림동과국인선교사묘원에 잠들어 있다. 두 가문 외에도 크레인 가문도 있다. 언더우드 가문에 비해 린튼 가문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화진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양림동도 방문하였으면 좋겠다.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개 하려는 것이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지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영복한 세상 선행한 마태, 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